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성경 공부

신학 및 예배 사무처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성경 공부

신학 및 예배 사무처

시작 기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며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 예식서 (WJKP, 2018), 396

마태복음 소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번째 책이면서 네 개의 복음서 중 첫번째 책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 부활에 대한 고대의 기록이다. 마태복음이 순서상으로는 처음이지만, 마가복음보다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빌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세 복음서들 안에는 중첩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비록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긴 하지만, 그 구조와 내용이 달라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된다.

마태복음은 기원후 70년 이후에 안디옥 (오늘날의 터키)이나 갈릴리 남부 지역 (오늘날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믿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쓰여져서, 예수를 그 백성을 구속하고자 온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다. 아래에 언급되어 있듯이, 다섯 개의 장으로 분할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구조는 모세오경, 즉 토라를 반영하고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은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시기에 쓰여졌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인 되심을 강조하고자 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기를 설명하는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다 (마 1:1-2:23).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 심문,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마 26:1-27:66), 부활 (마 28:1-20)로 끝난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사이에,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책"이 있다. 각각의 책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후 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마 3:1-7:29), (2) 갈릴리에서의 사역 (마 8:1-11:1), (3) 논쟁과 비유 (마 11:2-13:53), (4) 제자들의 형성 (마 13:54-19:2), (5)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마 19:3-25:46). 다섯번째 "책"이 마태복음 25:31-46로 끝나는 것에 주목해보라.

또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신학적 사고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다. 마태복음 첫 장에서 천사가 메시아 되신 예수의 탄생을 선포할 때, 저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 1:23; 사 7:14).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마태복음의 구조와 마태복음을 듣도록 의도된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 두 가지는 이 복음서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연한 빈곤 타파,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활력있는 회중 구축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맥락 속에서 본 마태복음 25:31-46

마태복음 25:31-46을 읽으십시오. 본 자료의 부록에 있는 함께 읽기(choral reading) 부분을 활용하거나 변용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에스겔서 34:1-31을 먼저 읽는다.)

마태복음 25:31-46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전은 마태복음의 다섯번째, 즉 마지막 책의 마지막 본문이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 26:1-2; 기울임체 추가됨).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배치했기에,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25:31-46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해 수탈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강하게 비난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외쳤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겔 34:2).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일반적으로 "왕"을 의미했다.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양 떼들을 흠어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하며 수탈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겔 34:3-4). 이 심판의 메시지와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비난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25:42-43).

그 지도자들 (또는 거짓 목자들)이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겔 34:11);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겔 34:14).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겔 34:15-16). 이 약속의 말씀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5-36). 이 장에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 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25장과 비교되는 또다른 분명한 장이다.

에스겔의 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두 본문 사이에는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스겔의 예언을 세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 첫째,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주리고 목마르고 낯설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사람들 사이에서다. 오셔서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교만하고 힘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는 소외되고 위협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 이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즉 지금 이 곳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과도 일치한다.
- 둘째,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다 (달리 말해, 이방인들이다). 새롭게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마 25:40, 45).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상황 및 관심과도 일치한다. 즉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 셋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비전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양의 무리에 들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들 것인가? 이는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주님을 보고 섬길 것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서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에스겔서 34장 평행 본문을 통해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두 본문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새롭게 깨달았나요?
-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재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 에스겔서 34장에 비추어 볼 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한 세 가지 시사점

마태복음의 이 중요하고 설득력있는 본문은 미국장로교의 사명 및 사역에 있어 중요한 주안점이 되었다. 특히 이는 이 세 전략적 우선순위, 즉 만연한 빈곤 근절,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활력있는 회중 구축에 대해 우리가 일하도록 격려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의 간략한 설명들은 마태복음 25:31-36이 이 영역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를 추구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문학적/일반적 해석, 역사적/비평적 해석, 영적/상징적 해석.



만연한 빈곤 근절

마태복음 25:31-46은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한다고 하는가? 이 경우엔, 문학적/일반적 해석을 통해 본문을 읽는다. 우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제대로 된 음식과 깨끗한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따뜻한 옷과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감옥에 갇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호의를 베풀며,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을 한다 (미가 6:8). 이는 곧 우리의 이웃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광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 또 더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을 무시하고 착취했던 지도자들을 향해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가 끝났다고 선포하는 한 선지자의 도전에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예언적 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빈곤을 영속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 누군가는 이득을 얻는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 긍휼을 베풀도록 요청하고 계신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소외되고 고통받으며 갇힌 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며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생각하고, 불평등의 원인과 맞서며,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나라나 이웃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게 된다 (눅 4:18-19).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마태복음 25:31-46을 통해 빈곤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가난을 시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구조적 인종 차별 철폐

마태복음 25:31-46은 구조적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비평적 해석이 요구된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원어 (코이네 그리스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일정한 단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 (판타 타 에스네)이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인자 앞에 다 모일 그 날에 대해 설명하신다 (마 25:31).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 (에스네)이라는 단어는 이방인, 즉 비유대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인종(ethnicity)"과 "자기 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와 같은 단어가 나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비전은 계시록에서도 나타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9).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 25:35). "나그네"라는 단어는 제노스 (xenos)로 여기에서 "외국인 혐오 (xenophobia)"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외국의," 또는 "이방인의"라는 의미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수네가게테 (sunegagete)인데, 여기에서 "회당 (synagogue)"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그 의미는 "모이다" 또는 "함께 하다"는 뜻이다. 타인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분열된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 또 더 있다.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내의 문화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방인 신자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가 있었으며, 다인종으로 새롭게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통을 겪는 상황이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모퉁잇돌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에 비유했으며, 그 성도들은 "산 돌"에 비유했다 (엡 2; 벰전 2 참조).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 인들은 벌써 그 건물 내의 분열과 틈새의 징조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이는 곧 모든 민족의 주님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 여행자들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것 (마 2:1-12)으로 시작하고, 위대한 사명,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로 끝난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종차별, 편견, 특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마태복음 25:31-46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었습니까?
- 개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 구조적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것을 언제,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니면 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활력있는 회중 구축

마태복음 25:31-46이 활력있는 회중 구축을 위한 교회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경우엔 영적/상징적 해석을 통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복음서들은 교회들, 즉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주의 날에 모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의 청중들이 음식을 나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의 만찬에서의 빵과 잔에 대한 그들의 식욕이 생겼을 것이다. 사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 자체 (또는 활력)를 주고자 하셨다. 햇빛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우리의 세례를 떠올렸을 것이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 아픈 자와 갇힌 자를 돌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복음 설교를 떠올렸을 것이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치유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인 행위들은 교회의 활력의 핵심이다. 사실, 장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나 "지표", 즉 우리 안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징표로 인식했다 (기독교 강요, 4.1.9).

그러나 이것 말고 또 더 있다. 복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므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눅 24:13-35),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주린 자에게 빵으로서, 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복음" 또는 "이웃과의 성례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예배 그리고 섬김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 (W-1.0106). 식탁에서 먹고 나서 우리는 나가서 다른 이들을 먹여야 한다. 성수반에서 영접을 받았으면, 우리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영접해야 한다. 복음에 의해 자유케 되었으면, 우리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힘을 모든 이에게 선포해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특징과 복음의 "활력있는 표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고 세상에 선포한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마태복음 25:31-46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활력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나요?
- 교회 차원에서, 또 교단/범교단 차원에서 활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각각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 회중의 활력을 키우는 교회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것을 언제,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니면 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앞서 나온 이야기를 연결해보기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회중의 활력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교회 사역에 있어 이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소수 인종에게 두드러지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만연한 빈곤 철폐와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가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문화 신앙 공동체의 활력과 장점은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와 활력있는 회중 구축 사이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목적과 성장은 활력있는 회중 구축과 만연한 빈곤 철폐 사이의 연결 고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교차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다 (골 1:17-18).

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른 우선 순위가 있는가? 물론 그렇다. 만연한 빈곤 철폐,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활력있는 회중 구축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요, 사역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시대의, 또 이곳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 세 영역에 중점을 둬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신 것이기에, 교회도 그곳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서, 또 교회의 세계선교를 통해서 ...

- 여러분은 만연한 빈곤 철폐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은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은 활력있는 회중 구축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한다 (마 1:23).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막힌 장벽을 허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이 사명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 28:20).

마치는 기도

임마누엘 주님, 권능과 영광 중에 속히 오소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소서.

구속의 날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사,

우리 구세주이신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일반 예식서 (WJKP, 2018), 170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분별력의 필요는 "마태복음 25장에 주의를 기울이기"라는 논문에 더 언급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 학습서를 보완하고 있는데,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matt-25-resource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태복음 25:31-46 을 함께 읽기

성경 봉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A, B, C and D). 굵은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그룹이 다 같이 읽으면 된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읽는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제 삼자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이 본문이 이 역할들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화자이면서 왕/목자 (또는 인자)의 모습이다.

A 화자 (예수):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 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B 왕/목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나 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A 화자 (예수):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C 양/오른쪽: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평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A 화자 (예수): 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B 왕/목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A 화자 (예수):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B 왕/목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A 화자 (예수): 44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D 염소/왼쪽: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A 화자 (예수):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B 왕/목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A 화자 (예수): 46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100 Witherspoon St., Louisville, KY
40202
PDS: PDS #10-050-21-007